

6.25 전쟁시기 중국군의 동원 및 입대 계기에 관한 연구

진 탁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중국군 6.25전쟁 참전배경 및 과정

2.1 중국지도부의 전쟁개입 준비 및 결정과정

2.2 중국국내에서의 참전에 대한 인식 및 동원

3. 중국군의 입대 계기 및 구성

3.1 중국군의 입대 계기

3.3 중국군의 구성

4. 결론

1. 서론

1950년 6월 25일에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발되었다. 전쟁초기에는 전세가 북한군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따라 전세가 역전되면서,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마침내 전선이 압록강 근처, 중국 국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중국지도부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명의로 1950년 10월 19일에 중국군을 전쟁에 투입하였다. 6.25전쟁의 전세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또다시 바뀌게 되었다.

그간 6.25 전쟁 시기 참전했던 중국군에 관한 연구는 자료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시기 중국군의 전술을 주목한 연구, 6.25전쟁 시기 중국군의 역할, 북한 유사시 중국의 역할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6.25전쟁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¹ 그러나

¹ 이영결, <한국전쟁기 중국의 전쟁 지원시 연구>, 경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국내학계에서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에 대한 표기방식에서도 통일되지 않고 중국군, 중공군, 또는 중국인민지원군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군의 성격에 대한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은 240만 명 규모였는데, 당시 중국공산당은 집권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만한 숫자의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에 보냈던 것이다. 국공내전의 휴유증과 새로운 정권의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한 규모의 군을 동원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에 중국군에 대한 연구는 우선 이들 집단의 구성과 그 동원과정에 대한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지도부에서 6.25전쟁 참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의 중국 국내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군 동원의 배경 및 방식, 그리고 중국군의 입대계기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군의 구성에 대해 대략이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1차 사료 및 최근 중국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군 참전자의 구술사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군이라는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2. 중국군 6.25전쟁 참전배경 및 과정

2.1 중국지도부의 전쟁개입 준비 및 결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에서 남침을 발동하여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6월 27일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사론에서는 이 전쟁이 이승만 괴뢰집단에서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국이 막후에 있는 조종자라고 비판하였다. 외교부장있었던 주은래가 이어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중앙정부성명에서 미해군이 대만해협에 배치한 행동이 중국영해에 대한 침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² 6월 30일 주은래는 중국주동독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시성문(柴成文)을 만나 전쟁정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산당과 노동당, 중국과 북한 간의 소통과 정쟁국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를 북한에 보내 주북한중국대사관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³

1950년 7월 7일 모택동은 섭용진(聶榮臻)에게 군대의 이동과 배치, 지휘부서의 조직, 후방 근무조직, 병원(兵員)보충준비, 정치동원 등 5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국방문제 1차 회의를 열어 즉시 중원지역에 있는 국방기동부대 제

² 「조선인민들이 침범자를 격퇴하기 위해 분투하다(朝鮮人民為擊退進犯者而奮鬥)」, 『人民日報』(1950. 6. 27): 「주은래 외교부장이 트루먼 1950년 6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박성명(周恩來外長駁斥杜魯門1950年6月27日聲明的聲明)」, 『人民日報』(1950. 6. 28).

³ 중공중앙문헌연구실, 『주은래연표(周恩來年譜1949~1976)』상권, 51쪽.

13병단 등 부대를 북상시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집결하여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동북변방군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의 전신이다. 동북변방군의 성립목적은 동북지역의 변경방어 및 필요시 '조선인민'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전이 결정되면 '지원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원군 깃발을 쓰도록 한다.'라고 결정하였다.⁴ 7월 13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북변방보위에 관한 결정(關於保衛東北邊防的決定)』을 발표하여 이 결정에 따라 하남, 광둥, 광서, 호남(湖南), 흑룡강(黑龍江) 등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제 13병단, 제 38군단, 제 39군단, 제 40군단과 제 42군단, 포병 1, 2, 8사단, 1개 고사포 연대, 1개 공병연대 등 모두 25만 5천여 명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켜 동북변방군이 건군되었다.

10월 1일 6.25전쟁에서 불리하게 됨으로써 체제존망의 위기에 있던 북한이 중국에 구조요청 편지를 보냈다. 출병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지도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출병에 반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모택동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의 지도부에서 출병을 주장한 자가 '1.5인'밖에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⁵ 동북변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도 부임을 안했던 임표는 질병을 구실로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출병하지만 군대를 북한 북부에 주둔하기만 하고 전쟁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 다(出而不戰)'라는 건의만 하였다. 10월 2일, 8일, 13일 선후 3번의 출병결정을 했는데도 소련의 공군 보호 등 여러 의제로 인해 분쟁이 컸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18일이 되어서야 출병하기로 한 결정이 성사되었다. 1950년 10월 19일에 동북변방군 제 13병단 산하에 있는 제 40군단이 먼저 압록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⁶

2.2 중국국내에서의 참전에 대한 인식 및 동원

⁴ 국방보위문제에 대한 첫 번째 토론 회의록(討論保衛國防問題的第一次會議記錄)(1950년 7월 7일).

⁵ 한 사람이 모택동 본인이고, 0.5 사람이 주은래이었다. 심지어 팡덕회도 처음에 출병계획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Chen Jian가 사철에 대한 인터뷰에서 사철이 모택동이 이와 같이 표한 적이 있다고 한다,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281쪽.

⁶ 중국의 중국의 참전 결정과정에 대해 최근에 심지화(沈志華)를 비롯한 학자들이 소련의 기록문서와 중국에서 출판한 회고록과 담화집, 주로 지도자의 연보(年譜)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참전결정 및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그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중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참여하지 않았고, 출병하는 것도 역시 소련과 북한의 요구에 한 것이어서 정책 결정하는 데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심지화(沈志華), 「중국이 6.25전쟁 출병결정과정과 동기에 대한 분석(中國出兵朝鮮的決策過程及動機分析)」, 『염황춘추(炎黃春秋)』2015년 제 2기, 2015, 심지화(沈志華), 「스탈린, 모택동과 한국전쟁에 대해 다시 논한다 -러시아기록문서의 최신증거에 근거하여-(斯大林、毛澤東與朝鮮戰爭再議——根據俄國檔案文獻的最新證據)」, 『역사집간(歷史集刊)』2007년 제 5기, 200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25전쟁 참전결정이 내린 후에 지도부 내부에 못지 않게 당시 군에서와 사회에서도 참전에 반대하는 소리가 컸다. 주은래가 1965년 6월에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는 6.25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상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겨우 해방인데 북한이 비록 우리의 이웃나라이지만 우리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전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⁷ 1970년 10월에 모택동이 김일성과 회견했을 때, 참전하기 직전 동북변방군 내에서 참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동북변방군의 군인 20%는 참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20% 군인은 참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0% 군인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⁸ 당시 많은 군인들은 압록강에서 방어하고 있다가 미군이 오면 전쟁을 치르면 될 뿐 굳이 남의 일에 참견하여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주은래의 군사비서를 담당했던 뤼영부(雷英夫)의 회고에 따르면, 임표는 당시 인구가 몇 백만 명밖에 안 되는 북한을 도와주느라 인구가 5억 명이 되는 중국을 희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장개석 국민당군대와와의 전쟁에서는 승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방대한 해군, 육군, 공군이 있고, 원자폭탄도 있으며, 더군다나 공업기초도 튼튼한데 북한을 돕다가 미국이 중국에 원자탄을 투하하거나 군기를 출동하여 대규모 포격을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출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출병을 해야 하면 '출이부전(出而不戰)'의 전략으로 군대를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배치하고 정세를 지키기만 하고 되도록 전쟁을 하지 말자고 건의하였다.¹⁰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특히 건국초기에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은 오늘날 중국지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어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이 약해 국내의 안정을 찾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50년 9월 18일 인민일보 편집실로 인민일보의 독자(讀者) 장가맹(張家萌)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⁷ 제득학(齊德學), 『거인의 힘 다루기- 항미원조 고층간의 정책 결정 및 지도(巨人的較量——抗美援朝高層決策和指導)』(북경: 중공중앙당교출판사, 1999), 59쪽,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항미원조전쟁사(抗美援朝戰爭史)』제1권(북경: 군사과학출판사, 2000), 157쪽.

⁸ 「모택동이 김일성을 회견할 때의 담화기록(毛澤東會見金日成時的談話記錄)」(1970년 10월 10일), 『건국후모택동군사문고(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하권(북경: 중앙문헌출판사, 2010), 372쪽.

⁹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정치공작경험총결편집위원회(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정치공작(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북경: 해방군출판사, 1985), 22쪽.

¹⁰ 송련생(宋連生), 「항미원조를 다시 본다(抗美援朝再回首)」(군명: 운남인민출판사, 2002), 222쪽, 서염(徐焰), 『모택동과 항미원조(毛澤東與抗美援朝)』(북경: 해방군출판사, 2000), 101-102쪽.

편지에서 그는 '평화를 지키고 싶다고 했는데 왜 또 전쟁을 지지해야 하느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할 만큼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지도부의 출병계획이나 결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 시기 중국국내에서는 참전에 대해 주로 아래와 같이 3 가지 소극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한다.¹² 첫째,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그들 국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이다. '전쟁이 모처럼 끝나 이제 겨우 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전쟁을 또 해야하냐.'라는 입장이 가장 대표적이었다.¹³ 이외에 전쟁을 하더라도 대만을 두고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에 불만을 갖고 '대만을 아직까지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라는 식이었다. 둘째, 북한이 미국에게서 당한 불리에 무관심한 태도이다. '6.25전쟁은 북한의 일이지, 중국과는 상관없다'고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이 침략을 당하거나 모두 두 나라 간의 생존을 위해 벌어진 경쟁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¹⁴ 전쟁 동원단계에 들어왔을 때 공청당원이 청년학생들에게 전쟁의 국세에 대해서 선전을 하다가 일부 청년학생과 지식인에게서 공산당이 사실을 과장해서 선전함으로써 전쟁 분위기를 조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⁵ 농촌에서도 농민이 북한과 중국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 질문하여 답을 들은 후에는 아직 멀었다고 하거나 농민은 그런 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동원에 무관심하였다. ¹⁶ 셋째,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숭배 또는 친미하는 태도이다.. 북한 인민군이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세가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을 보고 미국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미국을 좋아하게 되거나 미국과의 국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선진문화라고 생각하여 미국영화를 보고 미국 소설을 읽고 미국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는 특히 청년학생이 많았다 한다.¹⁷

¹¹ 「전쟁과 평화-장가맹군의 질문에 답하여(戰爭與和平 答張家萌君)」『인민일보』(1950년 9월 18일).

¹² 호송도(侯松濤), 「중공신문사연구자료자원에 대한 비교토로 -항미원조운동을 예로 삼아서-(中共新聞史研究 史料資源的比較討論—以抗美援朝運動為例)」, 청년당사학자포럼(青年黨史學者論壇), 2015.3.

¹³ 「심양시공산당위원회는 최근 간부 및 군중의 사상 및 동원 공작에 대해 고강동지에게 보낸 보고(沈陽市委 關於最近幹部群眾思想動態與動員工作給高崗同志的報告)」(1950년 11월 6일), 『당의 공작(黨的工作)』제 64기(심양: 중공중앙동북국당의공작위원회, 1950), 43쪽.

¹⁴ 「당산전문지구에서 항미원조운동의 초보적인 경험(唐山專區抗美援朝運動初步經驗)」(1950년 11월 29일) 『인민일보』(1950년 12월 12일), 1면.

¹⁵ 「북경시학생항미원조운동상황에 대한 보고(北京市關於學生抗美援朝運動情況的報告)」(1951년 월), 『투쟁(鬥爭)』제 70기(북경: 중공중양화동국, 1951), 14쪽.

¹⁶ 우창궁(於昌隆), 「농촌 선전에 관한 몇 가지 생각(農村宣傳的幾點體會)」『인민일보』(1951년 1월 14일), 3면.

¹⁷ 「북경시학생항미원조운동에 관한 보고(北京市學生抗美援朝運動的報告)」(1951년 1월), 『북경공작(北京工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된 후에는 중국각지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전쟁에 관한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소문의 내용은 대체로 대만과 동북지역의 상황, 한국전쟁의 전황, 세계대전, 그리고 원자폭탄 등에 관한 것이다. '동북지역이 이미 함락되어 미군이 상해를 점거하였고 국민당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거나 '미국이 북한에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였기 때문에 올해 겨울날씨가 특별히 추운 것이다', 그리고 '중앙인민정부가 이미 서안(西安)으로 이전하여 미군 전투기 50개가 한중(漢中)을 폭격시킬 것이다' 등이 있었다. 건국 직후였던 중국공산당은 이때까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은 민중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산둥지역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운동을 통해 토지를 얻은 농민이 토지를 수령하러 오지 않거나 새로 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비료를 일부로 쓰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¹⁸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온 집안이 아예 동북에서도 망치거나, 남방지역출신 기술자가 남방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청년노동자나 학생들은 징병의 대상이 될까봐 공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일부 당원과 공청단 단원 중에는 탈당 및 탈단 요구를 제출하였다.¹⁹ 상해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소련식복장을 입다가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²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내와 민간에서는 전쟁동원을 '프롤레타리아주의'와 '애국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혁명형(革命型)동원' 모델로 전개하였다. 1950년 10월 24일에 주은래는 중국인민정치회의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 보위화평(保衛和平)'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논리로 전쟁동원연설을 하였다. 이어서 10월 26일 중공중앙에서는 『시사선전에 관한 지시(關於時事宣傳的指示)』를 내려 '미제국주의 대한 일치된 인식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 친미적인 반동사상과 공미(恐美)적인 잘못된 심리를 단호하게 없애고 미제국주의를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깔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에 중국인민항일원조총회(抗美援朝總會)가 설립되고 전국 각 지역에 분회(分會)를

作)』제 9기(북경: 중공북경시공산당원위원회정치연구소).

¹⁸ 당대중국총서편집실(當代中國叢書編輯部), 『當代中國的山東』상권(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89), 103쪽, 호송도, 호송도(侯松濤), 「중공신문사연구사료자원에 대한 비교토로 -항미원조운동을 예로 삼아서-(中共新聞史研究史料資源的比較討論—以抗美援朝運動為例)」, 청년당사학자포럼(青年黨史學者論壇), 2015.3, 재인용.

¹⁹ 「동북국에서 최근 심양시예비층의 동태에 대해 중앙에 보낸 보고(東北局關於最近沈陽市備階層動態給中央的報告)」(1950년 10월 17일), 『당의 공작(黨的工作)』제 64기(심양: 중공중양동북국당의공작위원회, 1950), 19쪽. 호송도, 앞의 논문 재인용.

²⁰ 1950년 10월 30일 하승수(夏承燾)의 일기내용, 부위용(傅胃湧), 『1949년 중국지식인들의 사적인 기록(1949年中國知識分子的私人記錄)』(무한: 장경문예출판사, 2005), 196쪽.

세워 전국범위에서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였다.

3. 중국군의 입대계기 및 구성

3.1 중국군의 입대계기 및 구성

중국군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전쟁에 동원되었다. 그들이 전쟁에 동원된 유형은 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내에서의 전쟁동원으로 참전하게 된 유형이다. 이들은 이미 공산당군대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한 경우와 달리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군 군내에서 전쟁동원을 위한 명분은 당시 국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였다.²¹ 이와 동시에 국민당출신 군인들에게 사상개조를 중요시하였다.²² 하지만 단순히 순망치한의 논리로 군인을 설득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탈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쟁에 투입될 것을 군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동북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쟁에 투입되기 직전에 통고해 주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대만으로 송환된 중국군포로 및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군이든 모두 유사하게 회고한 바가 있었다²³. 참전소식을 감춘 것은 군사정보가 유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때문에 군인들의

²¹ '우리는 사천에서 무한에 걸쳐 석가장에 도착하였다. 무기를 기다리기 위했던 것이었다. 1951년 2-3월에 우리가 동북에 도착하였다. 중경에서 무한으로 가는 배에서 정치수업을 하였다. 군에서 회의를 열어 미제국주의가 북한을 침략하고 있고 미국군 중에 대학생이 **많아 전투를 잘 치르지 못해 우리 중국의 취사반이나 일반 병사보다도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항미원조하러 갈 것이고 우리는 지원군이 고 조국을 보위할 것이다. 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부녀를 강간하고 마치 일본인과 같이 조선인의 집을 태워버렸다고 하면서 평양이 김일성이 사는 데인데 평양조차 망해 버렸고 폭탄이 동북지역에 던지게 되었고 우리가 출국해서 조선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진(羅塵), 왕덕군(王德君)의 인터뷰(철강성 瑞安)에서, 1949년 입대, 1951년 3월에 입북, 12군 100명단 경비연대 통신원 겸 이발원. 412-419쪽 내용 정리. '공산당에서 미국은 북한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고 공산당이 북한을 주고 있었는데 왜 도와 주어야 하나면 압록강을 건너면 신의주이고 압록강 위에서 2-3 킬로미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넘기만 하면 중국이다, 전쟁을 안 하면 미군이 우리 동북지역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주수환, 장세영, 곽사고(郭仕高)의 인터뷰(2008년 11월 28일, 타이베이에서), 188-189쪽.

²² '우리와 같은 사람이 공산당에게 불리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산당이 그때 우리가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공산당에서 병사들이 무죄하다고 주장하였다', 마국정, 고문준(高文俊)과의 인터뷰(2008년 2월 23일)에서, 국사관, 앞의 책, 279쪽;

²³ '공산당군대에 재편된 후에 군대에 따라서 산서 및 사천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한국에 가기 전에 군에서 한국으로 간다고 알려 주지 않고 떠날 무렵이 되어야 한국에 간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국군출신이다, 포로가 된 사람이니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주수환, 장세영, 이무인(李茂仁)의 인터뷰(2008년 10월 9일, 타이베이)에서, 136쪽.

탈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조치로 보인다.

둘째, 민간 무장 단체에서 정규군대로 승격되어 전쟁에 동원된 유형이다. 이런 유형으로는 크게 지방 민병 및 지방 토적 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산당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존재했던 무장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민병의 경우에는 공산당의 점령 및 정권 파악에 따라 대부분 자연스럽게 공산당의 군대로 흡수하여 개편되었다.²⁴ 그러나 토적의 경우에는 토벌을 통해 생포되어 공산당군대에 개편된 것이었다. 민병이나 지방토적 출신자들은 공산당군대에 가입한 시간이 짧아 공산당에게서 받은 사상교육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토적의 경우에는 반혁명진압운동의 대상이었으므로 6.25전쟁에 투입되게 됨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²⁵

셋째, 지방정부의 징병을 통해 전쟁에 투입된 유형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위에서의 병력보충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촌인구를 중심으로 전쟁동원을 실시하였다. 선전부서가 마을을 단위로 하여 선전 간부를 현지에 보내 동원 대회를 열고 향미원조 및 참군동원작업을 선전하였다고 한다.²⁶ 선전할 때 토지개혁의 승리결과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다가 순망치한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전쟁동원을 하였고, 적극분자(積極分子: 정부나 장에서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감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활발하게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민중이 군대에 가입하도록 하였다.²⁷

농촌출신 중국군들이 입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농민들이 공산당에 의해 토지혁명을 통해 밭을 받았고, 자신의 '승리성과'를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의 전쟁동원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²⁴ 공산당이 사천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에서 민병조직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들어온 후에 민병을 접수하여 공산당군대에 가입하게 되었다', 주수환, 장세영, 곽사고(郭仕高)의 인터뷰(2008년 11월 28일, 타이베이에서), 188-189쪽.

²⁵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원릉(滾陵), 회동(會同), 영순(永順) 지역에 수감된 35,800여명 토적을 대상으로 교육개조를 실시하였는데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월까지 반혁명진압운동(鎮壓反革命運動) 가운데에 20,000 여명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나머지 '죄형이 가볍고 행실이 좋은 자' 10,000여명이 47군에 따라 한반도에 가서 참전하게 되었다. 이 사람 중에 100여명이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호남성상서초비승리기념관(湘西剿匪勝利紀念館) 홈페이지(<http://www.chinamartyrs.gov.cn/LingYuanZhanShi/C119/index.html>)에서 인용.

²⁶ 「중남국에서 동원참군에 관한 선전교육 공작에 관한 지시(中南局關於動員參軍的宣傳教育工作指示)」(1951년 5월 20일), 『중공중앙중남국문서집존(中共中央中南局文件輯存)』제 4권(武漢: 중공중앙중남국판공청(中共中央中南局辦公廳), 1954), 2359쪽.

²⁷ 「현위원회에서 두달동안 향미원조교육의 선도하에 각종 공작의 기초위에서 참군을 발동하는 총보고서(縣委關於兩月來抗美援朝教育在帶動各項工作基礎上帶動參軍的總結報告)」(1951년 3월 13일), 『현위원회영구권(縣委永久卷)』, 산둥성영성현기록관(山東省郯都城縣檔案館)기록, 기록번호: (全宗號)--I(目錄號)--29(卷號)--90(文件頁碼)號.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군 12군단 21사단 92연단 1대대 3중대 2소대 6분대 병사 이아림(李亞林)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동기 및 과정을 회고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나는 토지혁명을 통해서 토지를 받게 되었고 지주를 비판하고 진압을 한 후에 군대에 들어갔다. 그때 사회질서가 아직까지 정연한지 못하여 토적이 많았다. 그 당시 동원했을 때의 구호는 '해방대만, 항미원조 보가위국(解放臺灣 抗美援朝 保家衛國)'이었고 마을에서 대회를 열어 우리가 밭을 받게 되니까 정권을 보위해야 하고 승리의 성과를 보위해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범해서 국가가 항미원조를 해야 하고 한편으로 장개석이 대만으로 갔다고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였고 집에 형제자매 총 4명인데 아버지 혼자서 소작농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고 수확한 식량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는 데에도 부족하였다.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가 밭을 받고 집을 받고 우리가 이에 감사해서 국가에서 항미원조에 가라고 할 때 가야한다. 이것으로 당과 모주석의 은혜에 갚고 싶었다.²⁸

그러나 같은 농촌빈민출신이었던 중국군 60군단 179사단 536연대 3대대 통신원이었던 정용의(程龍義)의 회고가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용의와 같이 어렵게 결정을 내려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그와 같은 중국군 농촌청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큰 회의 작은 회의를 열고 일부 가정이 개별담화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집에는 형제자매 5명이 있고, 네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혼자 힘으로 저희 형제자매를 키우는 데에 무리가 많아 생활이 어려웠다. 내가 동원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보내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갔다. 물론 그 당시 동원했을 때 부인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주동적으로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고만 말할 수가 있지,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²⁹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시각에서 볼 때 6.25전쟁 발발 당시에 중국은 건국된 지 1년도 안 되었고, 경제 회복은 물론, 전쟁으로 인해

²⁸ 이아림(李亞林: 1950년 12월에 입대, 12군단 21사단 92연단 1대대 3중대 2소대 6분대 병사), 나진, 앞의 책, 790-791쪽

²⁹ 정용의(程龍義: 1951년 2월 14일에 군대 입대, 10월 24일 입북)의 인터뷰에서, 나진, 앞의 책, 28-34쪽 내용 요약.

농민의 부담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집안은 빈곤한데 학력도 없고 아무 기술이 없거나, 심지어 부모 없이 고아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과 잠자리 등 기본 생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전에서 미군이 아주 약하다고 했으니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입대한 꼬맹이 7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모 없이 노숙생활을 하였다. 마침 21군단이 우리 서안(瑞安)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17세 3명, 16세 2명, 15세 1명, 14세 1명으로 모두 군대를 따라 갔다. 참전 동기라면 그 때 정치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고 딱 하나만 생각해서 들어갔다. 즉 군대에 가면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도 생기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그때 그런 사상이 없었다. 우리는 배불리 먹기 위해 입대하였다. 처음에 우리에게 항미원조를 이야기를 안 해 주었는데 강소성 남부(蘇南)에 도착한 후, 즉 1952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솜옷과 솜장갑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 갈 것 같다고 예측하였다.³⁰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본인의 삶의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보기 위하여 미군이 전쟁터에서 노획한 중국인민지원군 제 608연대 후방근무처에서 작성한 「7,8,9월 물가경비 청구 기준에 관한 공지 (中國人民志願軍第六零八團後勤處為通知7,8,9月份物價報銷標準)」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서류를 통해 7월에 일반 병사에게 일인당 지급된 수당이 21,700원이었고, 소대장급 및 중대장급에게 1인당 지급된 보조금이 29,200원이었고, 대대장 및 연대장급에게 1인당 지급된 보조금이 41,700원이었다. 이 외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비(110,000원 -130,000원) 및 출장비(9,300원-14,100원/하루), 야근수당(1,039원)까지 지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³¹ 건국초기 중국에서는 공급제(供給制) 및 임금제(薪給制) 등 이중적인 분배제도를 사용하였고, 군대의 경우에는 공급제를 사용하였다. 공급제는 국가에서 군인에게 식사, 생활용품, 거주지, 학습조건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육아비를 제공해 주기도 한 제도이다. 1952년 중국의 1인당 GDP가 겨우 54달러밖에 안 되었는데 7월을 기준으로 1952년 일반병사 한 명당 1년 보조금이 260,400원으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6.9 달러였다.³² 같은 논리로 소대장 및 중대장급이면 1년의 보조금이 한 157.3 달러이었고, 대대장 및 연대장급이면 1년의 보조금이 한 224.6달러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³⁰ 손금규(孫金奎), 1950년 입대, 21군 63사단 포병단 지휘대대 전화병, 542-543쪽.

³¹ 7,8,9월 물가경비 청구 기준에 관한 공지지(中國人民志願軍第六零八團後勤處為通知7,8,9月份物價報銷標準),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3』(1949-1953.3)(춘천: 한림대학교, 1996), 506쪽.

³² 중국국가통계청(中國國家統計局)http://data.stats.gov.cn/ 데이터.

군대에서 받는 보조금은 당시 중국 국내에서 어떤 수준이었던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1952년 전후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의 관해서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농촌의 경우에는 1952년 1인당 소득이 25.59 달러이었고,³³ 도시의 경우에는 1955년까지 북경에서 최저생계비가 110,000원이었고, 상해에서의 최저생계비가 133,000 원이었다고 한다. 군대에서 음식과 거주,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다 해결해 주므로 본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보낼 줄 수 있었고, 결혼하여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에서 적지않은 육아비까지 보태 주었으므로 당시 중국군들은 보편적으로 받은 보조금에 만족한다고 회고하였다. 마발천(馬發泉)은 입대하기 전에 땀감을 팔아서 한 달에 5 지아오(角)만 벌수 있었는데 입대한 후에 부대에서 한 달에 2위안을 주었다고 하였다. 당시 돼지고기 한 근에 5 펜이었고, 야채가 한 근에 1 - 2 펜이었다고 회고하면서 2위안이면 당시에 아주 큰돈으로 본인이 2달을 아껴 모은 보조금 3위안을 부모에게 보내주어서 부모님이 기뻐하셨다고 회고하였다.³⁴ 그러므로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반면 부농이나 지주출신자들에 있어서 공산당정부에서 전개한 6.25 전쟁 동원에의 참여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농출신이었던 류통화(劉通和)는 '안 가면 반혁명분자가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군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³⁵ 빈농출신 이아림(李亞林)은 전쟁 초기에는 빈농이나 중농만이 입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지주나 부농이 신청서를 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으므로 거의 못 갔지만 입대신청서를 내면 그들의 출신 때문에 얻게된 '죄'를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⁶

물론 지방정부에서 징병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전쟁에 동원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마을에서는 입대하지 않으면 총살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주거나, 부녀자를

³³ 「1952-1978年農民收入增長情況」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1984

³⁴ 마발천(馬發泉: 1951년 3월 8일 군대입대, 12군단 35사단 104명단 병사), 680쪽. 중국에서 1955년부터 화폐를 바꿔 기존의 화폐 10,000원에 새로 발급된 화폐 1위안으로 환율을 지정한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2위안은 새로 발급된 화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1위안에 10지아오(角)에 해당되고, 1지아오는 10펜(分)으로 해당된다.

³⁵ '우리 집은 부농출신이다, 집안에 아버지, 형 한 명이 합쳐서 노동력 총 3 명이 있다. 꼭 1명 입대해야 하고 안 가면 반혁명이 될 것이다. 마을에서 나서도록 扣帽子(역지로 죄를 덮어씌운다)해 주기도 한다', 마국정, 류통화(劉通和가명)과의 인터뷰(2008년 4월 1일), 324쪽.

³⁶ '나는 1950년 6월에 신청서를 냈고 12월이어야 허가를 받았다. 지원군을 지원하는 데에 심사에 걸쳐야 한다. 빈농이나 중농출신이어야 갈 수가 있었다.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지주출신도 신청하였다. 왜냐하면 그때 정부에서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는 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원래 출신 때문에 비판대회에 가야 하면 면해 줄 수가 있고, 감목에 갇혀야 하면 면할 수가 있다', 이아림(李亞林: 1950년 12월에 입대, 12군 21사단 92단 1명단 3연단 2배 6반 전사)의 인터뷰에서, 나진, 앞의 책, 790-791쪽 내용 정리 요약.

선전작업대(宣傳工作隊)로 구성하여 동원 대상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입대할 때까지 설득하도록 하였다³⁷. 앞서도 언급했지만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되었던 당시에 토지개혁운동과 반혁명분자 진압운동이 같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 집단에서 소외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 이후 대만으로 송환된 중국군 포로 양만복(楊萬福)은 '그들은 우리를 인민지원군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원해서 군대에 갔다고 얘기해? 누가 자원하고 싶어서 군대에 가는 거야?'라고 회고하면서 자신은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군대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³⁸

넷째,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투입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농민이 아니라 주로 학생, 노동자, 기술자, 수공업자, 소상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0년 12월 1일 중앙인민혁명군사위원회 및 중앙인민정부정무원에서 「청년학생 및 청년노동자를 모집하여 각종 군사간부학교에 참가하는 연합결정 (關於招收青年學生青年工人參加各種軍事幹部學校的聯合決定)」을 공포하였다. 모집대상은 '17-25세이고 중학교 2학년 이상 청년학생 및 고등소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동자 중 건강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1951년 6월 24일에 중앙인민정부정무원에서 공포한 「각종군사간부학교 학생 모집에 관한 결정 (各種軍事幹部學校招收學生的決定)」에서는 대학 1-2년 학생, 나이가 17세 이상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그리고 고등소학교 졸업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³⁹ 1953년 12월 전국군사고급간부회의 (全國軍事系統高級幹部會議)에서 총간부부(總幹部部) 부부장 뢰전주(賴傳珠)는 '항미원조 3년동안 지식인 337,383명을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 및

³⁷ 항미원조를 한다고 해서 보장(保長)이 입대하는 일이 연기하면 안 되고 안 가면 총살 당할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어쨌든 갈 때까지 동원을 하였다', 주수환, 장세영, 류사영(劉思英)과의 인터뷰(2008년 11월 20일, 타이베이)에서, 170쪽; '날마다 밤에 회의를 하고, 온돌을 뜨겁게 한다. 사람들이 다 온돌에 앉은 데 7시부터 12시까지 해야 한다. 군대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할 때까지 동원하였다', 마국정, 류통화(劉通和 가명)과의 인터뷰(2008년 4월 1일), 324쪽;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부녀회를 조성하여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거나 왜 안 가냐고 물어보고, 조금만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군대에 갈 때까지 찾아와 동원을 하였다', 주수환, 장세영, 이홍범(李鴻範)과의 인터뷰(2008년 10월 9일)에서, 122-123쪽; '전쟁 동원할 때 간부가 마을 전체를 모으고 온돌에 앉다가 발언하라는 명령을 받고 발언을 했는데 저 간부들이 발언을 했다는 구실로 군대에 가입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 입대되었다', 주수환, 장세영, 장홍경(蔣鴻慶)의 인터뷰(2008년 10월 2일, 타이베이)에서, 108쪽.

³⁸ 양만복(楊萬福), 2008년 9월 17일. 주수환, 장세영과의 인터뷰에서, 89쪽.

³⁹ 유암(劉巖), 「항미원조기간 지식청년 입대에 관한 정확한 인원수에 대하여(抗美援朝期間知識青年從軍的確切人數)」 『군사사림(軍事史林)』2014 (10) , 26쪽.

노동자를 군대에 흡수한 것은 중국군 군간부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중 일부를 6.25전쟁에 보내 중국군에서 '통역', '문화교원', '수군참모' 그리고 포로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학생이 군에 입대하여 참전하게 된 동기는 비교적으로 단순하였다. 중국본토로 송환된 당시 중국군포로수용소 중국군포로 대표인 장택석(張澤石)은 청화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생인데 자신이 참전한 것에 대해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울 줄 모른다(初生牛犢不怕虎)'라고 비유하면서 참전한 동기에 대해서 '젊은 학생으로의 상당한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참전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⁴⁰ 그들이 선전에서 미제국주의가 북한을 침략하고 있으며, 조금만 더 있으면 미제국주의가 일본과 같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년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열정으로 군대에 입대하였다. 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간 학생들이면 집안 사정이 대부분 부유한 편이었다. 그들이 참전하게 된 요인이 한편으로 군대에서의 경력을 통해서 입대하기 전의 가정신분인 지주나 자본가, 또한 상인을 군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정치운동으로 인해 그들 집안이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된 경우도 있었다.⁴¹

학생과 달리 노동자, 기술자, 수공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여러 해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고, 기술자조차도 취직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들은 농민과 달리 밭조차도 없었다. 오감생(吳淦生)은 자신의 참전 동기에 대해서 실업자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병단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입학하게 되었고 병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6.25전쟁에 보내졌다고 한다.⁴²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형제 4명 중 3명이 모두 중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⁴⁰ 장택석(張澤石), 『我的韓國戰爭』(북경: 金城出版社, 2011), 3쪽.

⁴¹ '1950년에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때 우리 집에 형제 5명인데 아버지가 1급 요리사였고 해방이전에 큰 음식점장사를 했는데 해방이후 아버지가 실업자조차 되어 버렸다. 그때 전쟁동원에서 미제국주의 북한침략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네가 맡아들이라서 군대에 가라고 하였다. 내가 1951년 2월에 군대에 갔다', 송풍강(孫鳳康): 1951년 2월 입대, 1953년 입북, 21군단 63사단 후방근무 군수과 요원), 나진, 앞의 책.

⁴² '내가 고향에서 베 짜는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일하는 공장이 문을 닫았다. 상해에 있는 조선공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공내전이 마침 끝나서 배들이 국민당군에서 모두 압수된 바람에 실업자가 되었다. 1950년 4월쯤에 제 9병단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하여 병단학교에 들어갔는데 6월부터 내내 학교에서 한국에서의 국세에 대해 소개하고 1950년 9월 30일 학교에서의 교육이 모두 마치고 27군에 배치되어 문화교원을 맡았다. 군대는 산동에 걸쳐서 동북지역에 도착해서 심양에 있을 때쯤이어야 군대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원군으로 개명해 주고 항미원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때 바로 안동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쟁동원을 할 때도 항미원조가 속전속결한 것이니 딱 전투 한 번만 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두꺼운 군복조차 가져가지 않았다. 오감생(吳淦生: 1950년 11월 입북) 나진, 앞의 책, 108-111쪽 요약, 116쪽.

참전하였다. 그 까닭은 역시 집안상황이 가난한 데에 있다.⁴³

3.2 중국군의 구성

중국군의 동원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중국군으로 동원된 계기 및 동기가 다양한 만큼 그 구성도 역시 복잡하다. 중국군의 구성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군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즉 중국군의 출신지역, 연령, 성별, 교육수준, 군입대하기 전의 가정출신, 본인의 사회성분, 군령, 당령(黨齡) 등을 통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전체 중국군의 구성에 관한 자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전쟁터에서 1951년 3월 20일에 중국 장사에서 통계된 경위연(警衛連: 경비중대)의 '정치질량통계표(政治質量統計表)(A)와 같은 해 6월 16일에 석옥동(石玉洞)에서 통계된 47군 139사단 416 연대 경위연의 '정치질량통계표(B)'에 관한 絶密(극비)자료를 노획한 적이 있다.⁴⁴ 이런 정치질량통계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 만큼 당시 군내에서 정치공작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점을 알 수가 있다. 비록 이 자료는 일부 중국군에 관한 통계자료뿐이었지만 이 자료로 인해 중국군의 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치질량통계표 내에 <가정출신 및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사회성에 관한 통계(家庭出身及入伍前本人社會成份統計表)>⁴⁵를 살펴보고자 한다. A중대 168명 중대원 중에 자유업 2명, 소상공인 3명, 노동자 2명, 빈민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농촌출신이었으며 B중대 136명 중에 자유업 1명, 상인 1명, 빈민 7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농촌출신이었다. 농촌 출신 중에 빈농, 고농, 중농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지주, 부농이 A 중대에 각 1명, 2명이 있고, B중대에 부농 1명밖에 없었다. 당원여부의 경우에는 A중대에 168명 중에 50명이 당원이고, 15명이 공청단(共靑團)원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 수의 38%를 차지함으로써 공산당조직에 직접 예속한 자가 38%나 됐다. B중대에는 136명 중에 당원이 37명이고, 14명이 단원이기 때문에 전체 수의 약 36%가 공산당조직에 직접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사회성분을 봤을 때 A중대에 학생 12명, 노동자 14명, 수공업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⁴³ 우리 집에 형제 4명인데 3명이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나는 막내이었다. 셋째 형이 해방 이전에 공산당군이었지만, 둘째 형이 국민당출신이고 후에 공산당군에 편입되었다. 내 고모가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데 군인이 자주 와서 상품을 구매하였고 거기서 군인이 '꼬맹이, 참전할 래?'라고 물어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부와 연락해서 나를 군대에 보냈다. 그때 17세이었다. 서수부(許秀夫: 1951년 1월 참군, 21군단 63사단 포수), 나진, 앞의 책 358-360쪽 내용요약.

⁴⁴ 「정치질량통계표」,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제 4권(춘천: 한림대학교, 1996), 551쪽-565쪽.

모두 농촌출신자(84%)이었다. B중대 역시 자유업자 4명과 학생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농촌출신(92%)이었다. 당원이 모두 노동자 및 농민 출신이었고, 단원 중에 농촌출신자 이외에 학생 및 자유업자 출신이 간혹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군에는 농촌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중대로서 당원 및 단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만으로는 전체의 당원 및 단원의 비율을 짐작할 수 없지만 당원 및 단원의 출신으로는 농민 및 노동자, 학생, 그리고 일부 자유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가정성분 및 본인의 사회성분간의 차이로 당시 군인이 성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군령 및 내력 통계표(軍齡來歷統計表)>를 살펴보면 중국군의 많은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첫째, A중대의 168명 중에 국공내전이전부터 공산당에 예속한 사람이 단지 3명밖에 없었고, B중대의 136명 중에 국공내전이전부터 공산당에 예속한 사람이 단지 1명밖에 없었다. 나머지 모두 다 국공내전(표에서의 사료대로 해방전쟁으로 표기되어 있음)시기에 군대에 가입하게 된 사람이었다. 내전시기에 흡수된 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6월까지 A중대에 14명, B중대에 10명; 공산당이 내전에서 역전되기 전인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A중대에 20명, B중대에 17명, 공산당이 역전되고 전쟁이 부분 종료될 때까지인 1948년에 A중대에 32명, B중대에 43명 공산당이 전국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정권까지 세웠던 1949년에 A중대에 53명, B중대에 43명, 6.25전쟁이 일어난 1년 후인 1951년에 A중대에 46, B중대에 37명이 입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공내전 기간 동안 A중대 168명 중에 165명이 이 시기에 입대했고, B중대 136 명에 총 136명이 이 시기에 입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중국군의 군령이 3년 이하로 짧았고, 순수한 중공군출신자가 중국군에서 차지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국공내전 기간에 입대한 군인은 징병된 자와 내전에서 공산당에 생포되거나 투항하여 공산당군대에 편입된 자 등 2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A중대의 경우에는 징병된 자가 93명, 국민당군인출신이었는데 생포되어 입대된 자 58명, 투항하여 편입된 자 19명이 있었다. B중대의 경우에는 징병된 자가 74명, 국민당군인출신이었는데 생포되어 입대된 사람 48명, 투항하여 공산당군에 편입된 자 13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주력은 국공내전 시기에 징병된 자와 국민당군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국민당군 출신자 중에는 중국군에 편입된 계기가 투항보다 생포가 더 많았다.

당원이나 단원여부의 경우에는 우선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역전을 획득한 후에는 공산당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항일전쟁시기부터 중공군에 가입한 자는 모두 당원이었고, A중대의 경우에는 1948년 역전이전에 가입한자 중에 당원이나 단원의 비율이 71%, 80%로 높았는데 1948년 후에 53%, 35.8%로 떨어졌다. 1950년과 1951년에 가입한 자 중에는 공산당원이나 공청단원이 아예 없었다.

B중대도 비슷하였다. 역전이전에 군대에 가입한 자 중에 당원이나 단원의 비율이 80%, 76.4%로 높았는데 1948년 이후 60.8%, 34%로 떨어져서 1950년 1951년 가입한 자중에 당원이나 단원이 아예 없었다. 중국군 중에 반공경향을 가진 자가 있어 공산당에 가입한 것에 거부한다는 자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초기에 군대에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나중에 군내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에서 타격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원이나 단원이 차지한 비율이 급감된 것은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는 개인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 버려서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위치했던 자들이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후에 반공포로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단원의 수량도 1948년, 1949년부터 통계가 나왔으니 이 시기부터 중국군에 학생과 도시 빈민층 청년을 군대로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군 중 공산당원의 당령에 관한 <당령 통계표(黨齡統計表)>를 보면 대다수의 당원이 국공내전에서 국세를 역전한 후인 1948년, 1949년, 그리고 1950년에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추세는 앞에서 살펴봤던 역전 이후 군대에 가입하게 된 자가 공산당조직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과 정반대이었다. 이것으로 군내에서의 정치운동의 전개 및 중국군 동원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 국가군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공산당원으로 흡수하고, 또한 수많은 전국민당출신 병사가 편입된 군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1948년 및 1949년에 군대에서 공산당원을 많이 선발하였을 것이다. 1950년에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군대내부에서는 당원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고, 이 시기에는 공산당 정권이 이미 세워져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군인보다 군 내부에서 그동안 단련된 자를 공산당원으로 선발하였을 것이다. 군내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으로 인해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갈수록 더욱 본인의 사회성분과 배경이 직접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출신성분이 안 좋은 자는 점차 공산당군대에서 소외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자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로 유엔군에 투항하였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투항은 그들에게 오히려 전사를 피하고 정치운동에서의 불리함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본인의 출신성분에 투항까지 했던 사실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의 핵심이 되었다.

중국군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 대다수 중국군의 학력수준이 많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중대 168명 가운데 문맹이거나 초등소학(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자가 각 64명, 78명으로 전체의 38%, 46.4%를 차지하였다. B중대의 경우에는 136명 가운데 문맹이거나 초등소학에 해당하는 자가 각 64명, 55명으로 전체의 47%, 4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군 중에 80%를 넘는 병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문맹에 불과한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나온 자가 4명, 1명밖에 안 되었다. 이중에 당원의 교육수준은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A중대의 경우에는 50명 당원 중에 47명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문맹에 해당하는데 전체 당원의 94%를 차지하였다. B중대도 역시 9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군의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군 포로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리게 되었을 것이다. 연령으로 봤을 때 중국군의 대부분(95%정도)이 18세-35세에 속하고, 17세 이하 및 15세 이상은 극소수였다. 당원의 연령은 보통 21세-35세 정도 되고 그 중에 26세-35세가 다수였다.

4. 결론

6.25전쟁에 중국군의 참전은 흔히 알려져 있듯이 중국지도부에서 순망치한 및 토지혁명의 성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을 동원시켜서 참전했다는 것과 달리, 건국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240만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조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공산당지도부에서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강제적인 동원을 시킨 적도 있었고, 경제적인 곤란이나 실업 등으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해있던 청년들을 군사동원에 유치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군 구성원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입대하게 된 계기, 또는 동기는 서로 다를 것이다.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만 이 집단을 '중공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한다는 시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중국에서 온 군대라는 점을 고려해서 '중국군'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싶다.